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R&D 인력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음식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지난해 기업 매출 역대최대 7300조... 법인세는 6.2조원 감소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세수 현황에 먹구름을 끼게 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1903.5조원으로 전년대비(1648.6조원) 254.9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5.5조원으로 전년대비(30.3조원) 4.8조원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총매출은 199.5조원으로 전년대비(172.9조원) 26.6조원 증가했며, 법인세는 3.4조원으로 전년대비(3.2조원) 0.2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5218.8조원으로 전년대비(4258.6조원) 960.2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52.7조원으로 전년대비(54.3조원) 1.6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에는 중소·중견기업들도 포함되지만, 재벌 산하에도 대형 비상장사가 다수 있다.